

#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 총무-기획 국제 교류 위원회 소식

### 1. Resuscitation Council of Asia (RCA), General Assembly 참석

2011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n Conference on Emergency Medicine 회의 기간 중에 RCA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RCA 총회에는 황성오 사무총장, 송근정 BLS위원장, 이중의 교육위원장이 우리 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번 RCA총회에서는 싱가포르의 Dr. Swee Han Lim이 새로운 RCA chairman으로 선출되었다.

### 2. 2011 Asian Conference on Emergency Medicine 학술활동 참여

우리 협회의 황성오 사무총장, 송근정 BLS위원장은 2011년 7월 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n Conference on Emergency Medicine에서 각각 plenary lecture 및 resuscitation symposium의 연자로 활약하였다. 황성오 사무총장은 "Resuscitation in Asia" 제

하의 plenary lecture를 하였으며, 송근정 위원장은 "2010 new CPR guidelines in Asia"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의 CPR guidelines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였다.

### 3. 대만응급의학회 및 resuscitation symposium 참석 및 강의

송근정 BLS위원장과 이중의 교육위원장은 2011년 10월 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대만응급의학회 및 ALS resuscitation symposium에 참석하여 각각 ALS in Korea 제하의 강의를 하였다.

### 4. AHA stakeholder meeting

우리협회와 AHA는 2011년 10월 12일 원주의대에서 AHA 교육자료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된 stakeholder meeting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AHA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Mr. King과 황성오 사무총장은 AHA 교육자료의 한국어 번역 및 international training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BLS 위원회 소식

### 1.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 시행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재정후원으로 서울(강남대로, 광화문, 신촌, 서울역, 명동)과 부산(서면 및 해운대)에서 대형 LED 전광판에 '가슴압박 소생술'에 대한 교육영상물을 상영하여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을 시행하였다.

### 2. 임훈 교육위원회 간사 응급의료유공자 표창 수상

대한심폐소생협회 임훈 교육위원회 간사가 군 의무병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확산과 전국 1,000 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12월 14일 응급의료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 3. 제5회 BLS FACULTY SEMINAR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 BLS 위원회는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5회 BLS FACULTY SEMINAR를 개최하였다. 이번 SEMINAR에는 총 24명의 BLS FACULTY가 참가하였으며, 향후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BLS



FACULTY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4. 제 5차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 시행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11년 6월 28일 제 5회 CDC (Course Director Course) 과정을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70명의 BLS TS Director와 Coordinator들이 참석



하였다. 이번 CDC 과정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제 운영규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더불어 한글로 더빙된 2010년 AHA BLS-Provider 교육 동영상도 공개되었다.

### 5. 서울소방학교 대상 BLS 강사과정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BLS 위원회는 2011년 6월 21~23일과 11월 22~24일에 서울소방학교에서 현역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2회의 BLS 강사과정을 실시하였다. 2박 3일로 진행된 BLS 강사과정에 총 48명의 구급대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총 43명의 구급대원들이 BLS Instructor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 6. BLS 일반인 강사과정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BLS 위원회는 2011년도에 총3회의 BLS 일반인 강사과정을 실시하였다. 1박2일간 진행된 이 교육에 총61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모든 교육생들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증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 ACLS 위원회 소식

### 1. 2011년 AHA-ACLS 교육 운영방침과 영상자료 번역본 배포

2011년 6월 28일 배포된 AHA-ACLS 교육 동영상과 운영방법에 대해 CDC 코스와 ACLS 강사소식지를 통하여 알리고, 한글 자막을 임시 삽입한 한글 동영상상을 2011년 7월 4일 건양대병원 ACLS TS 에서 열린 ACLS-P renewal 과정부터 2010-2011년 새로운 교육교재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1 AHA-ACLS-Provider 프로그램 국내 적용 운영

1. 국내 적용 예정인 운영 프로그램인 2011 AHA-ACLS-Provider 11.5시간을 10.5시간으로 1시간 단축(1.5시간 축소하여 운영)을 한데 대해 운영 방침을 알리고, 19명의 ACLS-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4일(금요일)에는 2011년 하반기 ACLS-Instructor 코스를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개최하여 21명의 ACLS-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다음 강사 교육은 2012년 2월 4일 (토요일)에 열린 예정이다.
2. 국내 적용 예정인 AHA-ACLS-Provider 11.5시간을 10.5시간으로 1시간 단축(1.5시간 축소하여 운영)을 한데 대해 운영 방침을 알리고, 19명의 ACLS-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4일(금요일)에는 2011년 하반기 ACLS-Instructor 코스를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개최하여 21명의 ACLS-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다음 강사 교육은 2012년 2월 4일 (토요일)에 열린 예정이다.

번 ACLS 강사 교육에서는 2010-2011년 변경된 AHA ACLS 교육과정 에 대한 최신 내용과 소개와 함께 진행하였고, 19명의 ACLS-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4일(금요일)에는 2011년 하반기 ACLS-Instructor 코스를 삼성서울병원 임상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개최하여 21명의 ACLS-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다음 강사 교육은 2012년 2월 4일 (토요일)에 열린 예정이다.



### 5. 국내 최초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 완성

2011년 8월 2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ACLS-KALS 통합 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개발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인 KALS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한국전문소생술) 프로그램 명칭과 인증 절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대해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KALS 교육과정의 운영시간은 4.5시간, 교육 인증기간은 2년, 강사자격은 4년, 교육위원 4년 유효하며, 2011년 9월부터 KALS 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자료를 정리하여 2011년 12월 8일에 열린 소생의학연구회 학술모임에서 한국전문소생술 과 정 개발 배경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발표: 이미지)을 발표하였다.



### 2. 2011년 하반기 ACLS TS 신규 추가 지정: 동강대학교, 한양대병원

2011년 동강대학교와 한양대병원에 대한 ACLS TS 실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이로써 전국 AHA-ACLS TS 로는 27, 28번째 ACLS-TS 로 지정되었다.

### 3. 2011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원주의대 김현 연구팀)

김현-정우진 연구팀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21일 인천 송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CLS 위원회 2011년 공동연구지원 프로젝트인 '심폐소생술 후 생존 퇴원환 환 자에 대한 추적 관찰 및 평가' 주제에 대해 구연 발표하였다. 연구 팀은 8개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후 생존한 환자들 중 CPC(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scale) 1점 또는 2점으로 좋은 신경학적 결과를 가지고 퇴원환 환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장기추 적조사를 시행하여 신경학적 예후가 좋았던 자발순환회복 환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75.0% 이었고, 환자들이 호소한 신경학적 결 손으로는 단기기억장애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 4. 2011년 중반기, 하반기 ACLS-Instructor 코스 개최

2011년 8월 7일(일요일)에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진과 소생술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를 위한 2011년 중반기 ACLS - Instructor 코스를 선문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 6. 국내 최초 한국전문소생술 KALS-P/I 통합 인증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 ACLS-KALS 통합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4





일에 국내 최초 한국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인 KALS 교육 및 강사 통합과정을 이주대병원 응급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KALS-P/I 통합 과정을 통하여 KALS 교육생 18명과 강사 17명을 최초로 배출하였고, 과정 운영후 KALS 교육개발 자축행사를 열었다.



### 7. 2011년 AHA-ACLS 강사를 위한 KALS-I 강사교육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 ACLS-KALS 통합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개발된 KALS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 1일(가톨릭의대 START 센터)과 8일(이주대병원 응급센터 회의실)에 AHA-ACLS 강사를 위한 KALS 강사 교육과정을 개최하여

KALS 강사 42명을 추가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KALS 강사는 73명, 교육위원은 9명이고, 예비 TS 지정으로는 서울대병원, 이주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건양대병원이 신청하였다.

## 교육위원회 소식

### 1. CPR 범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MOU 체결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정부종합청사 5층 마중물터에서 'CPR 범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협력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우리 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소방방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이 협약서에 참여하였고, 우리 협회는 CPR 지침 제정, 지침의 전파 및 교육,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김성순 이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소방방재청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와 함께 조인식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 단체들 중에서 우리 협회의 역할이 CPR 지침의 수립과 CPR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 2. '우리나라 PAD (일반인 제세동) 정착과 바람직한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우리나라 PAD (일반인 제세동) 정착과 바람직한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PAD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사회와 보건당국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는 취지로써, 우리나라의 PAD 현황을 돌아보고, 일본의 성공적 PAD 경험을 참고하며, 우리나라 PAD 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협회 김성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우리나라에서 PAD 사업의 적극적 전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축사를 해주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가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확인해 본 우리나라 사회의 PAD 현황을 발표하였고, 서울 중구보건소 이향숙 과장이 공공기관에서 PAD를 시행한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이 PAD 사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보건 당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일반인 CPR 교육과

PAD에 관련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본 Kokushikan University (國士館大學) Hideharu Tanaka (田中秀治)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PAD 사업이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들었다. 기존의 심포지엄과 달랐던 특징적인 발표로는 필립스 코리아, 씨유 메디컬, 그리고 나눔테크와 같은 자동제세동기 생산자들을 참여시켜 일반인들이 보다 더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생산자들이 어떤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보고, 자동제세동기 보급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에스원과 LG-U로부터 참여시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PAD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이 총 104명 참석하는 작은 모임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 PAD 사업의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PAD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최초의 장이 되었다. 가능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취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PAD 사업의 기틀을 다시 잡는데 우리 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 3.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과정 시행

2011년 12월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 대전 국군의무학교에서 내년 국군의무학교 위생병 CPR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과정을 열었다. 임훈, 김진우, 엄동춘, 유은영, 이창희, 그리고 이중희가 faculty로 참여하였다. 2012년부터는 국군의무학교에서 양성되어 배출되는 5,000명의 의무병들을 모두 우리 협회의 교육 방식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과정을 교육하고 우리 협회의 이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즉, 강사:교육생 비율 1:9와 교육장비:교육생 비율 1:3을 지켜서 4시간 과정을 교육하게 된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군의 심정지 소생률과 소생 품질의 개선이 예상되며, 이들이 제대하여 시민으로 복귀한 후에는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 협회가 일반 시민 CPR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판단하여 2년 전부터 노력해온 군인 교육 프로젝트가 드디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시는 정기영 학교장을 비롯한 국군의무학교 소속 강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